

꿀벌 품종 생산·보급 '부안 위도에서 한다'

농진청, 오늘 국내 최초로 '격리육종장' 개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수한 꿀벌 품종 생산과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로 '꿀벌위도격리육종장(격리육종장)'을 완공하고, 오늘 부안군 위도면 현지에서 개소식을 연다.

격리육종장은 최근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면서 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병해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꿀벌은 공중에서 여러 마리의 수벌과 다중교미하기 때문에 우수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른 꿀벌이 없는 격리된 장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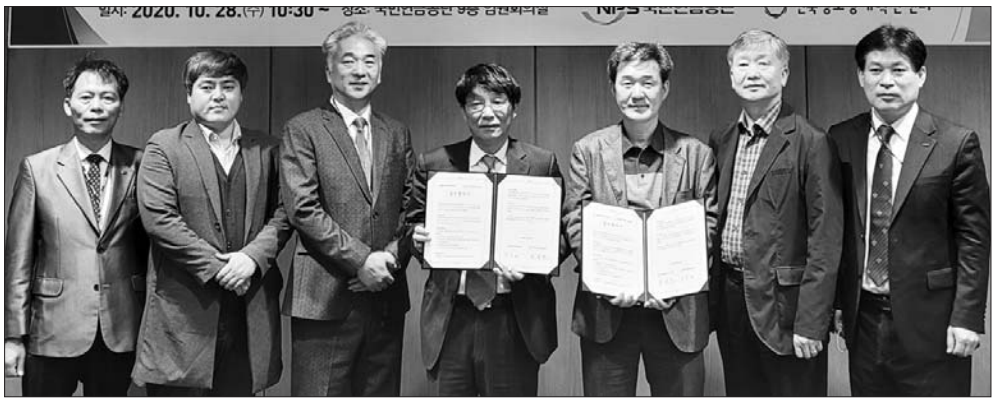
농진청은 2013년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2016년 토종벌유충썩음병(남충병이부패병) 저항성 우수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격리된 전문 육종장이 없어 품종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품종 개발 뒤에도 체계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해 농가 수요에 부응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격리육종장은 2018년 터를 닦기 시작해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올해 9월에 완공됐다. 격리육종장은 3만6,791㎡ 면적에 연구동, 사육사, 창고동, 밀원동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동에는 수벌의 정액을 채취

하고, 여왕벌에 주입하는 인위적인 수정과정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꿀벌인공수정연구실을 마련했다.

농진청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 신품종 육성, 양봉지원 보존, 계획적인 육종을 통한 품종 증식과 보급 등의 법정업무를 격리육종장에서 추진하게 된다.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양봉농가의 숙원이었던 격리육종장이 개소함에 따라 국가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 등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창출과 우리 양봉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사업인 '2020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국민연금, 전북창조경제센터와 글로벌마케팅 지원 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사업인 '2020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박정배 기획이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과 함께 10개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대표해 (주)엔시티 김중진 대표와 (주)라이프드림 남기환 대표가 참석했다.

2020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함에 불구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제품 등을 외국어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어 번역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업력 7년 이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약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R 자료 번역,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카탈로그 외국어 번역,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등 4가지다.

공단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동반성장포럼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 약 6천 만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북지역의 창업기업이 어려워진 때에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전 김제전력지사, 신축 사옥서 전력서비스 실시... 어제 입주

한국전력 김제전력지사(지사장 주경수, 위원장 이종수)는 28일 한전 김성암 부사장과 이경섭 전북본부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사옥 입주식을 가졌다.

김제시 검산동으로 이전한 김제전력지사 신축건물은 2019년 2월에 착공해 올해 7월까지 18개월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쳤으며 대지면적 3,960㎡, 연면적 2,03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또한 새 사옥은 지평선 경관 조화형 외관을 비롯해 조망, 방난방공조 제어가 가능한 SMART 빌딩 시스템으로 구축돼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갖추게 됐다.

김제전력지사는 신축 사옥 입주로 전북관내 서남부지역 6개 시군에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은생생특 고객자문단 2기 모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생생특(生生Talk) 고객자문단' 2기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은행 생생특 고객자문단은 고객과 함께 전북은행의 상품·서비스·프로세스 등 금융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고객패널 제도다. 앞서 생생특 고객자문단 1기는 지난 1월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고객자문단 신청은 전북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정기모임 참석 및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및 MS Office를 이용한 문서 작성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오늘부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

농관원 전북지원, 전주 모악창고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오늘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모악창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14개 시·군 310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

올해 전북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량은 총 5만8,235톤으로 일반벼 56,485톤, 친환경벼 1,750톤이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

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이번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가격의 저가미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등의규격을 신설해 태풍 피해 벼 매입을 병행 추진한다.

매입검사장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1, 2, 3단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산단에 상용차 부품 연구센터 들어서

개발청-자동차융합기술원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 계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8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테크비즈 프라자'를 구축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크비즈 프라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의 하나로 미래 상용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수요 조사결과, 전북도 내·외 30여 개 자동차 업체에서 입주의사가 있었으며, 이들 기업 입주 시 고용 규모는 7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처음으로 미래형 상용차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새만금의 미래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산단(1공구) 장기임대용지 1만6,500㎡에 546억 원을 투자해 지상 6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1년 4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자동차 관련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은 28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테크비즈 프라자'를 구축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입주공간과 실험시험 장비가 구축돼 기업의 미래형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과 성능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입주는 올 7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첫 연구기관 유치이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작년 11월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 7월에는 '강소 연구개발특구'(전기차 부품소재 분야)로 지정돼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을 지원하는 '테크비즈 프라자'의 입주로 관련 기업유치는 물론, 기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등 전기차 업체와 연계한 기술 경쟁력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처음으로 미래형 상용차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계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노동력 1/6로 줄이는 '대과 수확기'

전주대 농생명 ICT 연구팀·두루기계통상이 함께 개발

성능시험 실시 결과 수확률 100%·손상률 4.4% 이하

전주대학교 농생명 ICT 연구팀(최규홍 교수)은 발작물 수확기 생산 전문업체인 두루기계통상과 함께 '승용 자주식 대과 수확기(대과 수확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과 수확기는 벼 품바인처럼 운전자가 두둑을 따라 운전하면, 수확기 전방에 있는 원관 경기와 굴취날이 대과 뿌리 부근의 흙을 파내 대과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또한, 부드러운 평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 대과 줄기의 연백부를 잡아 올리면서 후방부로 이송하는 형식이다. 컨베이어 아래에는 소형 탈곡 장치를 부착해 이송 중인 대과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수확기 후방부로 올라온 대과를 보조 작업자(2명)가 상자에 담은 연속식 수확기다. 대과 수확기의



주행부는 무한궤도형이며, 유압변속장치(HST)를 채택해 주행속도를 0~1.50m/s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중순 충남 아산시 둔포면 대과밭에서 기계로 정식(조건 75cm, 주간 13cm)한 대과를 대상으로 수확기 성능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행속도 0.2m/s에서 대과 수확이 원활했고, 1,000㎡를 수확하는데

125분이 소요돼 인력 대비 6배 이상 작업 시간이 단축됐다. 대과는 빠짐없이 수확돼 수확률 100%를 보였고, 손상률은 4.4% 이하로 나타나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연구진은 대과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대과 주산지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업과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대과 수확기는 농림식품기술기획연구소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됐으며, 이를 활용하면 외국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대과 수확 작업을 대체하고,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과 재배 농업인 조화현씨(전남 신안군 지은면)는 "수확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기계로 하고 있어 대과 수확기 개발이 절실했다"며 "대과 수확 작업을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새로 개발된 대과 수확기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등 지원 확대"

백년가게에서 듣는 현장의 목소리

전북중기청, '가치샵시다' 간담회... 현판식과 병행

오랜기간 업력을 이어온 백년가게 3곳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지난 20일과 28일에 '20년 2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전북지역 4곳 중 '합치박', '국제금고사', '원조뽕이냉면'에서 업체대표와 경영으로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중기청은 비롯한 각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 이어서 백년가게 현판 제막식 및 인증확인서를 전달했다.

간담회를 통해 전북중기청은 백년가게 선정업체에게 최대 1억원 한도의 직접대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백년가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백년가게 대표들도 오랜 업력을 이어온 성공노하우 전수 등 후배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보노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백년가게 중 '합치박'은 익산 지역에서 3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정통 경양식점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좋은 품질의 고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프랜차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지역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7일 전북대학교와 우석대학교를 방문해 총장들과 새만금 사업과 지역대학 간의 상호성 있는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청장은 "새만금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확보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새만금 입주기업들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대학과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지역대학으로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에 관심이 많다"라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들이 뿌리를 내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정주여건 등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대 남천현 총장은 "새만금 기업 유치가 활성화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터(RIC)와 새만금 수소사업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청장은 "새만금과 지역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라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